



즉시 배포용: 2023년 4월 3일

KATHY HOCHUL 주지사

## HOCHUL 주지사, CUNY 견습 기회 확대에 200만 달러 지원 발표

*견습 프로그램을 세 배로 늘려 뉴욕 일자리 최고경영자 협의체와 함께 연계 전공을 운영하는 CUNY 칼리지 10곳 모두에서 시행*

*견습 프로그램은 유급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은 학점과 함께 현장 경험 습득 가능*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200만 달러를 지원하여 2023년 가을 학기부터 뉴욕 시립 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에서 연계 전공 관련 견습 프로그램 12개를 추가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CUNY 프로그램 확대로 고수요 산업에 대한 학점 대상 견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 추가 운영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컨설팅, 금융, 리스트 관리, 사이버보안 등 CUNY 연계 전공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기존 견습 프로그램 5개를 기반으로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견습 기회는 양질의 일자리, 중요한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입니다. 우리는 CUNY 학생을 위해 중요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추가 200만 달러 투자와 더불어, 우리는 연계 전공 프로그램의 견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 전역의 뉴욕 주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견습 기회는 [연계 전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CUNY 칼리지 10곳 모두](#)에서 진행되며, 추가적으로 [CUNY 커뮤니티 칼리지 7곳](#)을 비롯해 College of Staten Island, Medgar Evers College, New York City College of Technology에서 진행하는 2년제 학위 프로그램에서도 진행됩니다. 견습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업에서는 학생에게 급료를 지불하며, 학생들은 9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Félix V. Matos Rodríguez 뉴욕 시립 대학교 학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견습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자신의 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들은 보조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육 종료 후 업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교실 밖 현장 경험과 접점을 그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투자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2년제

프로그램 학생들을 현장에 배치하여 인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신 교수요 산업의 기업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학생들은 뉴욕 일자리 최고경영자 협의체(New York Jobs CEO Council) 소속인 JPMorgan Chase, EY, Citi, American Express, Deloitte, AIG, Mastercard, Wells Fargo 등 기업에 배치될 것입니다. 일자리 협의체는 뉴욕시 최대 규모의 기업 최고경영자 연합으로, 10년 후 CUNY 재학생 및 졸업생 25,000명을 포함해 다양한 저소득층 뉴욕 주민 100,000명 고용을 목표로 합니다.

**Eric Adams** 뉴욕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NY 졸업생으로서 저는 학교가 뉴욕 주민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견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실질적인 기술과 경험을 쌓아 해당 부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욱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가 추진하는 200만 달러 규모의 CUNY 견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 특히 우리의 아프리카계 및 라틴계 학생들이 금융, 기술, 기타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Kiersten Barnet** 뉴욕 일자리 최고경영자 협의체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과 기업 모두에게 있어 판도를 바꾸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업무를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경쟁이 높은 직군으로 직접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을 높입니다. 기업들은 우리 도시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는 숙련된 인재 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Borough of Manhattan Community College** 학생으로 EY 전문 서비스 견습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Benjamin Abraham**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트워킹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접 사람들을 만나 서비스 라인에 대해 물어보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은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었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저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Abraham과 동료 견습생 등은 EY에서 프로그램 관리자와 함께 현장에서 일주일에 4일을 근무합니다. 정해진 배치 기간 외에도, 견습생들은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 강사진과 만나고 선임 근무자들로부터 그들의 경력과 산업 전반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EY Metro** 뉴욕 경영 파트너인 **Alysia Steinman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규모 뉴욕 기업으로서 대학생 견습 프로그램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왜 특정 직군에 반드시 4년제 졸업생을 고용해야 했는지 다시 질문을 던지고 현재의 고용 기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기술에 신속하게 적응해야 하며, 고용 역시 변화 대상에 해당합니다. CUNY 출신 학생들을 우리의 고용 파이프라인에 추가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인재 풀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이번 확대에 수백명의 학생들이 견습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응용과학연계(associate of applied science, AAS) 전공 프로그램을 수학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졸업 후 업계에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2년간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이 학사 학위를 이어가도록 독려하는 전통적인 연계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CUNY는 재학생 및 졸업생을 위해 인력 개발 이니셔티브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CUNY Inclusive Economy Initiative](#)를 통한 1,600만 달러 규모의 민간 파트너십 확대, [CUNY Futures in Finance](#)를 통한 금융 직군 훈련, [CUNY Career Launch](#)를 통한 하계 공공 부문 및 비영리 직군 배치 등이 있습니다. Matos Rodríguez 학장은 현재 뉴욕시 Future of Workers Task Force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Adams 시장의 지시에 따라 견습 기회 확대 등 노동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